

다산포럼

여성 정치인의 힘



고 세 훈 고려대 교수

선진국들이 일련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도 버텨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정치의 기본 틀이 상식의 성역으로서 굳건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나라들의 정치가 갈등을 교정하느라 분주할 때, 우리의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만들어 내느라 부산하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 대개조’를 외치고 있으나 총성의 대상도, 발언의 기회도, 탈출의 통로도 찾지 못한 채 체념과 좌절을 오가며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보통사람들의 한숨이 겹쳐진다.

정치가 견고한 상식의 성체를 쌓아올릴 수 있는 바탕은 사회의 변방들을 포용하면서 그 외연을 점차 넓혀왔다는 데 있을 것이다. 학자에 따라 그 과정을 시민권의 단계적 발전으로 말하기도 하고, 정치의 계급적 지반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

가 성숙해 왔다는 인식에 달기도 한다. 요컨대 그 과정은 비주류가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역사였다. 그 갈등과 투쟁의 도정에서 원칙을 공공선으로 구현해 내려는 여성 정치인들의 성취는 현대로 올수록 각별했다.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영국 보수당정치를 16년 동안 지배했고, 메르켈은 35년의 폐쇄된 동독 공산주의에서 성장한 평범한 가정의 딸로서 통일 독일의 수상으로 12년 권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 내용이야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대치는 영국 보수주의 전통을 온정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단번에 전환시킴으로써 영국정치의 지형을 바꿨고, 메르켈은 독일 보수주의를 굳건한 실용주의적 토대 위에 안착시켰다.

이들이 말을 먼저 말로써 이겨야 하는 남성 중심의 정치를 주도하기까지, 원내외의 수많은 정책 논쟁의 혹독한 검증, 길고 지루한 수련기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 과정에서 대척의 소신은 견고해졌고, 메르켈의 소용과 타협 그리고 포용의 리더십은 광채를 더해갔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미국의 여성 정치인 엘리자베스 워런이 떠오른다. 그녀는 아파티 수리공인 아버지와 전화 교환원인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여 허버드 법대 교수, 매사추세츠 민주당 상원의원에 까지 이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2012년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상원의원이 된 이후, 힐러리 클린턴과 대비되며 미국 언론과 여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았다.

그녀는 미국 주류정치에서 위협천만 한, 선명한 중도좌파 노선을 견지하며 미국정치와 시장의 게임 룰 자체가 월가와 대기업들에 의해 조정,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부자를 책임지게’ 만들기 위해 의회 안팎에서 그녀가 쉽 없이 권력을 다그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최근 ‘21세기 자본’으로 일약 스타 진보학자가 된 톰 피케티와 나는 대담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지만, 그녀는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들과 수많은 통계와 숫자를 동원하여 즉석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때로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싸움에도 혼신을 다해 임하는 그녀에게 한 기자가 그 이유를 묻자 대답은 이랬다. “싸우지 않으면 가능성은 제로다. 시간이 없다.” 지난 5월에 출간된 이후 뉴욕타임스 베스

트셀러 목록에 줄곧 올라있는 그녀의 회고록 제목이 ‘투쟁의 기회(A Fighting Chance)’인 것은 흥미롭다.

그녀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차기 대권후보를 위한 가상 대결에는 늘 그녀의 이름이 들어있거니와, 최근에는 바이든 현 부통령을 누르고 2위에 올라섰다. 올해로 64세이니 2016년의 대선이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지자들의 성화는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잉라 친나와 태국 총리가 얼마 전 물러났다. 또 다른 여성 정치인이다. 정재계의 막강한 인맥을 지닌 기업이 집안의 막내 딸인 그녀는 부패로 총리직에서 쫓겨나 해외를 떠도는 오파 탁신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다가 역시 군부에 의해 퇴진했다. (2011년 총선에서 그녀는 “나는 오파에게 경영과 비전을 배웠다. 나의 사고는 오파와 같다”는 말로 탁신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엔 공직자 재산등록 시 8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누락시켰다는 것이 화제다. 그녀의 정치행적을 뒤져보아도, 외모와 패션 말고는 정치적 ‘역량’과 관련해서는 이렇다하게 거론할 만한 것이 안 보인다. 과연 한국의 여성 정치인(들)은 무엇으로 여론에 회자되는가.

정춘 특·특

‘좋아요’ 누른다고 세상이 변하진 않는다



문 나 래 전남대 사회학과 2학년

대한민국은 온통 세월호였다. 어딜가도, 페이스북에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온통 노란리본이었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금급이라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듯 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91일째, 지금은 무서울 정도로 잊혀지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또 전국일주를 하며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있다. 광주에서도 매주 집회가 열린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하는 학생, 자원 봉사하는 학생, 꾸준히 집회에 참석하고 관심을 갖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이 더 많다. 때로는 그들의 외침이 처량하게 느껴질 정도다.

분명 현시국에 문제를 느끼는 학생은 많다. “그 많은 학생은 다 어디로 갔을 까?”하는 궁금증을 풀기위해 ‘전대신문’이 지난날 27일부터 사흘간 전남대학교 재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전남대학생 사회 참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질문지 작성법)를 진행한 결과 ‘지금 사회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109명(37.46%)의 학생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36명(12.37%)이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생 절반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학생은 4명중 1명 뿐이었다. 74.57%의 학생은 ‘사회 문제에 직접 의견(참여)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왜 많은 학생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일까? 그들은 ‘참여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41.28%), ‘개인적인 여유가 없어서’(14.47%),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고 싶지 않아서’(13.62%)라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사회 참여의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는 ‘집회 및 시위 참여’(36.11%)를 꼽았다.

대학생들이 침묵하는 것은 단순한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가 대학생의 사회참여를 의면하게 만들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교수는 ‘개인주의 화’를 대학생 침묵의 원인으로 제시하며 학생이 자신과 사회를 분리해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문제는 결국 내 문제이고 내가 취업이 안 되는 것도 그 원인의 많은 부분은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는데, 사회는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때 우리가 받은 교육의 최종 목표는 오로지 수능 고득점이었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경쟁을 거쳐 대학에 가고, 그리고 승자독식, 약육강식 논리에 부당한 생각을 갖고 있고,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순응하는 사람이 많다. 요즘은 대학생도 1학년부터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그만큼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세상이니, 바쁘겠지만 때로는 사회문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남들은 자기 살길 찾지 바쁜데 어디서 저런 순수함이 나오는 거지?’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우리 교육의 한 가지 목표는 민주시민

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나선다고 달라지겠어?’하는 무기력보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묵묵히 자기목소리를 내던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변했고 분명히 변하고 있다. 물론 세월호 참사에서 느낀 분노, 유감, 미안함을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덜어서는 안된다. ‘좋아요’를 누른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이 방법도 자기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일시적이고 영향력이 없는 방법일 뿐이다.

2014년을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짐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 자기 방식으로 노력해야 한다. 식상한 대답이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이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며 손에 촛불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앞에 서주지는 못할지언정 방관하고 그 뒤에 숨는 모습은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기 고

‘너 자신을 알라’는 말에서 배워야 할 것



정 성 재 광주상무초 교장

흔히 ‘너 자신의 무지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겸손 하라’든지 아니면 ‘네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라든지’ 하는 의미의 말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인용한다. 허나 사실 이 말은 아폴로 신을 모시는 델피(delphi)신전의 돌기둥에 새겨진 ‘Gnothi Seauton’ 즉, ‘너 자신을 알라’를 소크라테스가 활용한 것으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적 혼을 주시하라’는 의미다.의 말이다.

고대 화랍 신화의 성립 근거를 보면, 제우스신화는 귀족지배체제의 가치관을 옹호한 것으로, 신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음을 그대로 유추하여 귀족과 하층계급 사이의 위계질서를 하나의 불가

침적인 것으로 굳혀 놓으려는 데 성립 근거가 있다. 귀족들은 인간이 신을 넘보는 것을 오만으로 간주했으며, 평민이 귀족을 넘보는 것도 그대로 오만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그 오만에 대한 응보가 무엇인지를 신화를 통하여 보여 주려고 하였다.

반면에 아폴로 신화는 귀족들에 대항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상공업자들의 냉철한 합리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평소에 인식하지 못한 평민들의 엄청난 힘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을 상징화한 것이다. 아폴로 신은 무적의 힘을 추구하는 태양신이고 남성적 신이다. 아폴로신은 화살의 신이기도 하다. 그는 큰 홍수 후 나타나기 시작한 공포의 대상·거대한 구렁이를 평소와 작은 토끼를 잡던 활과 살로 처치한다. 이렇게 강하고 용감한 아폴로신이지만 출신 성분은 보잘것없는 양치기 신분이었다.

아폴로 신을 모신 델피신전의 ‘너 자신을 알라’는 가르침은 제우스 신화적 의식과 관습에 젖은 사람(평민)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알거나 또는 자기의 잠재력을 알라는 계율로, 그 자신이 제우스 신화에서처럼 하루살이 정도도 취급되는 존재가 아니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

으니 그 능력을 올바르게 자각하고 개발하라는 것이다. 이 격언이 나중에 소크라테스에 의해 내면에 있는 ‘신적 혼’을 주시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사람마다 생명

의 원천으로 지니고 있는 영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것과 이에 따르는 인간으로서의 참모습을 스스로 갖추도록 사람들을 일깨우는 말로 정립되어진다.

이렇게 볼 때 당시 소크라테스 사상은 귀족을 위시한 지배 계층의 통치사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이들 사회에 있어 그는 암적 존재였던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국민 현혹 죄’로 처벌, 사약을 받게 한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귀족 계층의 방화와 평민계층의 노예근성, 혹은 타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마음속에 일론 각성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남은 재산 하나,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외치게 된다. 즉, “형제여! 여러분들은 그렇게도 무지합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도 모를 정도로....., 지금이라도 귀족들의 립 서비스에 속거나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적 혼을 주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이를 실현하십시오.” 라는 진리의 외침을 죽음으로 표현하게 된다.

외국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배를 대기와 감옥 문을 열어 탈출을 권유하는 동료와 제자들의 만류를 거부하고 “악법도 법이다. 내가 여기서 탈출 한다면 이 사회의 도덕성(정의)은 어디로 간단 말인가?” 라는 주장과 더불어 자기 손으로 독배를 들어 죽음을 택한다. 이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시민들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적 혼을 인지하는 정신(자아의식)을 일깨우려 한 것이다.

여기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악법도 법이므로 잘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귀족만을 위한 법, 세습적 지배 복종을 합리화 하는 법, 그 악법이 신 앞에 떳떳해서 진리를 말한, 신 앞에 선 단독자 소크라테스 자신을 죽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법을 잘 정비하여, 귀족의 권리 뿐 아니라 시민의 권리, 가진 자들의 권리 뿐 아니라 못 가진 자들의 권리, 노예의 권리 등 모든 사람의 가치와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세상, 모든 이가 진실된 자기가치를 실현하는 세상을 열라.”라고 외치고 싶었던 것이다.

社 說

장마철 재해 위험지역 주민들 불안에 떠다

아직 큰비는 오지 않았지만 장마철이 되면서 재해위험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름에 집중되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은 큰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의 대처는 느슨해서 매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우수가 붓고와 침수가 우려되는 재해 위험지구는 광주 15곳, 전남 378곳 등 모두 393개소로 파악됐다. 현황 집계에서 보듯이 특히 전남 지역에 위험한 곳이 많다. 넓은 하천이나 강, 험준한 산악지역이 분포된 자연환경 탓일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전남도는 재해위험지구 가운데 나주 지역 등 19곳의 독과 배수펌프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태풍 피해가 발생한 67곳은 예산 부족 등으로 보수공사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붓고와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15곳으

로, 전남에 비해서는 적지만 주거지가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더 심각하다. 서구의 양동북개사가 허부 주차장 등 7곳, 북구 광천1교 하부도로, 광산구 광신대교 아래 도로 등 7곳이 해당된다. 아곡 주민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비바람 피해 격정으로 여름철 내내 애가 탄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어 시설 보수가 필요한 데도 예산 부족으로 아예 공사에 착수조차 못한 곳이 많다.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복구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또 다시 태풍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몇 차례 태풍이 지나갈 것이다. 당국은 위험재해지구와 가까운 주민들에 대한 경보체계 가동과 후속처리 등 응급대처 방안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안전 차원에서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항구적인 개·보수 계획을 세워 재산과 인명손실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홍물 전일빌딩 광주의 ‘랜드마크’ 맞는가

5·18 광주민중항쟁과 80~9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 현장을 지켜온 전일빌딩이 도심 속 홍물로 변하고 있다. 광주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중요 외곽시설인 전일빌딩 리모델링 계획을 중단해 내년 9월 문화전당 개관 시점에도 방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물 소유주인 광주시는 지난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친 전일빌딩 활용방안 민간협의회를 통해 전체 2만 2470㎡ 중 1만2105㎡만 존치하는 안을 마련했다. 존치건물은 지난 1974년 건립한 지하 1~지상 10층으로, 리모델링 사업비 135억 원, 공사기간은 1년6개월로 잡았다.

민관협의회는 또 리모델링 전 전일빌딩에 종합미디어센터와 빛고을문학관, 예술창작스튜디오 등 3개 시설을 설치하는 안으로 정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후 민간협의회 개최는 물론 현재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리모델링 기간이 최소 1년6개월 넘

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공사를 진행해도 문화전당 개관과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전일빌딩 1층 KEB 외환은행도 건물 외관 공사시 광주시와 디자인 등을 협의하기로 했으나 논의가 지연되자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 강남로 1가 1번지에 위치한 전일빌딩은 1980년 5·18 당시 총탄 자국이 남아있는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이자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다. 광주시는 애초 이 빌딩을 허물고 문화전당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존치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도 이런 이유다.

문화전당 내 구(舊) 도청과 마주하고 있는 전일빌딩은 그 역사적 가치로 볼 때 전당과 조화를 이루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까지도 광주시는 리모델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시, 문화도시 광주가 그 상징인 전일빌딩을 방치한다면 문화전당 개관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無 等 鼓**

향수에 대한 문외한도 ‘샤넬 넘버5’는 들어 보았을 것이다. 센스있는 남자라면 연세이질 여자친구에게 샤넬 넘버5 하나쯤은 선물했을 것이고, 인기있는 여자라면 하나쯤 받았을 청춘 아이탬이다.

샤넬 넘버5는 프랑스 디자이너인 코코 샤넬이 1921년 만든 이후 향수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9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30초만에 하나씩 팔릴만큼 인기다.

샤넬 넘버5와 관련된 일화로는 마릴린 먼로가 가장 유명하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이자 섹스심볼이던 그녀는 1952년 “무슨 옷을 입고 자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은 질문에 “잠자리에 들 때 걸치는 것은 샤넬 넘버5뿐이다”는 말로 못 넘성들의 성적 상상력을 자극했다.

할리우드 스타 드류 베리모어는 지난해 둘째 딸 임신 사실을 알고 딸을 샤넬 넘버5라고 불러 화제를 모았다. 둘째 딸이 샤넬 가문의 5번째 손주라는 뜻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샤넬사 전 사주의 아들이다.

단순한 디자인의 사각 크리스탈에 담긴 노란색 이 향수는 83가지 재료가 더해져 만들어졌다. 재스민·장미·바

이올렛 등 꽃 향기에 합성성분인 알데하이드가 더해져 매력적인 향을 발산한다. 산소와 수소,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분자화합물인 알데하이드는 꽃향기에 풍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

샤넬 넘버5를 뿌리면 비누 냄새와 비슷한 알데하이드 향이 느껴지고 재스민 등 꽃향이 따라서 올라온다. 하지만 가장 큰 매력은 잔향(殘香)이다. 잔향의 핵심은 참나무 이끼(나무·흙 향)다. 참나무 이끼 성분은 향수의 강도와 지속력을 높인다. 목직향(麝香), 달콤한 바닐라 냄새가 체취와 섞이면서 육지적인 향이 지속된다.

샤넬 넘버5 향이 내년부터 바뀔 전망이다.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참나무 이끼와 스트렐(검굴 등) 향수 제조에 쓰이는 23가지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이 원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탓이다.

참나무 이끼 대신 미역같은 해조류 성분을 써도 된다지만 해조류 특유의 습한 이끼 냄새가 향에 섞이게 된다. 참나무 이끼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유럽인구는 3%라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지 아깝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샤넬 넘버5**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奇賢鎭</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청춘특독·기고 환영합니다** 청춘특독·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